
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개선안

2020. 07. 09.

재 활 의 학 연 구 센 터
재 활 전 문 센 터
재 활 공 학 서 비 스 센 터

I 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개선 제안

배경 및 현황

○ (부족한 소속병원 보조기구 서비스) 최근 소속병원 보조기구 관련 집중 재활프로그램 및 환자유입은 활성화되었으나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은 다소 미흡

- 소속병원 내 제작실 시설 미흡
- 소속병원 파견 제작기사의 역할 발휘 곤란
- 직무지원 사업에 치우친 시범 사업 내용

○ (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 관련 구심점 필요) 개발에서 요양급여에 이르는 전체 절차를 논의하고,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회의체 필요

- 보조기구 서비스의 구성 : 물건, 제작/수정, 교육/상담, 훈련, 수리/사후관리, 처방/검수
- 생태계 구성원 : 의사/제작기사/치료사/부품공급자/부품개발자/보험사

○ (공단내부 연구지원 부족) 장기적인 보조기구 개발 및 임상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조직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킹과 활발한 ‘내부’ 연구과제 운영이 필요함

개발연구 → 임상연구 → 정책연구

산재 보조기구 수가 운영 회의 목적

- (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업) 다양한 부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, 보조기구 관련 개발, 제작, 임상, 정책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이 요구됨
- (물건 + 서비스) 산재 요양급여의 경우, 물건공급과 확인정도에 치우친 상황임 → 보조기구라는 물건뿐만 아니라, 제작기사/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운영이 필요

보조기구 중심 (Device provision) → 사람 중심 (Service provision)
예시) A보조기구를 “홍길동”에게 줘도 되는가? → “홍길동”환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들을 어떻게 고르고, 훈련시키고, 수리/수정하고, 평가하고, 계속 공급할 것인가?

* 소속병원 시범재활수가에서 일부 훈련, 교육/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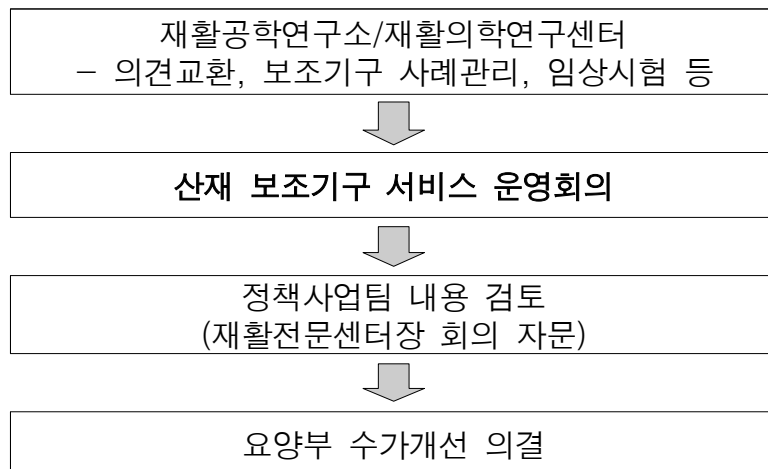
- (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) 소속병원 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하여, 점진적으로 산재 재활인증병원 및 산재 지정병원에서 운영할 산재보조기구 서비스 정책 수립
예시1) 희소한 상병군이고, 요양시기상 아급성기이며, 집중적인 훈련과 물건 제공이 필요한 경우 (양측 상완절단), 소속병원으로 전원 후 관리
예시2) 흔한 상병이고, 요양시기상 유지관리기이며, 단순 반복적인 지급관리만 필요한 경우 (간단한 수지절단), 각 지역 단위 지정된 보조기 업체에서 관리

제안

- 1) 산재 보조기구서비스 운영회의 신설
- 2)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
 - 시범 재활수가와 마찬가지로, 요양초기에 집중적인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
 - 신규 품목들의 시범 도입 (예비품목)을 통한 임상적 근거 및 적정성 평가의 토대 마련
- 3) 제작기사의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 내 역할 강화
- 4) 연구소 개발품의 활용 절차 정비
 - 재활공학연구소 개발품의 초기단계 임상평가,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수가 및 요양급여 수가 편입을 위한 프로세스 정비
- 5) 연구지원
 - 보조기구 임상시험 및 정책 관련 재활의학연구센터 연구지원

세부 제안사항

- 1) 산재 보조기구서비스 운영회의
 - 참석자 : 의료사업본부 정책사업팀, 요양부 담당,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장, 재활의학연구센터장, 재활공학연구소 담당
 - 논의내용 : 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전반
 - 운영과정



2)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수가 분류 추가

○ 산재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vs 산재 요양급여 보조기구

내용	목적	주요 운영주체
산재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수가 운영	소속병원 내 보조기구 및 의지보조기 기사 관련 시범수가 운영에 대한 사안	정책사업팀 재활전문센터장/재활의학연구센터장 재활공학연구소 담당자
산재 요양급여 운영	- 전체 산재 요양급여 보조기구 서비스 수가 관련 운영회의 - 외부의견(의지보조기학회, 재활의학회, 환자 등) 및 기타사항	요양부 (재활전문센터장/재활의학연구센터장)

○ (시범 보조기구 수가 운영의 이점) 소속병원 내에서 활용할 시범 보조기구

- 수가 분류를 신설하고, 효과성 및 추후 요양급여 편입 필요성을 검토
- 요양급여화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감소
 -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의 기본 틀 재검토의 기회
 - 소속병원 내 제작기사들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참여의 계기
 - 아급성기 보조기구 서비스 보강
 - 재활공학연구소 개발품에 대한 시도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○ 기존 직무지원 보조기구와의 조화로운 운영 고려

-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수가가 기존 직무지원 보조기구를 포함하도록 재정의하고, 고용촉진/고용유지의 목적에 합당한 경우 직무지원 보조기구로 관리

3) 제작기사의 보조기구 서비스 내 역할 강화

○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회의 운영주체

○ 제작기사 관련 시범 수가 개발 및 보조기구 수가 개선

* [붙임1] 세부 논의 사항 참조

- 상담/교육료
- 아급성기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 관련
- 빠져 있는 부품 분류 추가
- 시장 부품가격 반영한 수가 조정

4) 연구소 개발품의 활용절차 정비

○ (현행) 공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부품에 대하여, 다음과 같은 절차로
요양급여 추진했었음

부서	담당업무
재활공학연구소	기구적 내구성, 기초적인 기능, 시착결과 등을 통해 수가화 제안
요양부	내부심의, 공단 내·외부 전문가 자문

→ 신규도입 보조기구 활용체계가 불명확하여, 활발한 활용 및 임상적
근거 확보 미흡

○ (개선안) 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회의에서 다음 절차에 따라 논의

프로세스 내용	업무 부서			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분류
	재활공학 연구소	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/ 재활의학연구 센터	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회의	
A. 현장에서의 필요성 조사	○	○		(연구개발)
B. 보조기구 개발 및 기구적 안정성 시험	○			
C. 기능검증 및 Pilot 임상시험	○	○		
D. 유사기능 타제품 대비 비열등성 검토 (non-inferiority test)		○		산재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예비품목
E. 제품화 (AS 및 안정적인 제품공급)	○			
F. 시판 후 검토 (post-market survey)	○			
G. 시범수가로의 지급 타당성 검토			○	
H.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서비스로 운영		○	○	산재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수가
I. 요양급여수가로의 지급 타당성 검토			○	산재 요양급여 보조기구수가

※ 제품 및 사안에 따라, 산재보조기구 서비스 운영회의를 통해 프로세스 조절 검토

※ D. 유사기능 타제품 대비 비열등성 검토 (non-inferiority test)는 공정성을 위해 소속병원과 외부기관이 연계된 외부 연구 용역으로 확인 고려

5) 보조기구 임상 및 정책연구를 위한 지원

○ 재활의학연구센터 장기 과제로 다음 내부연구과제 계획 중임

① 보조기구 사례관리

- 요양급여 혹은 산재 시범 보조기구 수가에서 지급할 수 없는 보조기구 시도
- 현시점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, 적절한 재활훈련 및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한 지원

예시) 복합부위 외상환자, 양측 상지 절단, 양측 하지 절단,

- 산재 보조기구 서비스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시도

예시) 중증 척수손상환자에 대한 보조공학서비스 연계 (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지역사회보조공학센터), 지역사회 메이커 자원 활용 (폴리텍대학)

② 재활공학연구소 개발품 임상적용 연구

○ 안정적인 내부 연구의 목적

① 근거중심 산재 보조기구 서비스로의 발전

② 장애인 보조기구는 기본적으로 시장확보가 어려운 분야로, 재활공학 연구소의 개발품에 대한 적극적인 임상연구의 토대 마련

③ 소속병원 제작실 및 치료실의 기능향상

○ 재활의학연구센터 내부연구과제에 대한 의료사업본부, 공단 및 고용노동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지원 필요

Ⅱ 2020년 산재보조기구 서비스 운영회의

안건

- 운영회의 참석자 범위 및 운영 일반
 - 기존 직무지원 운영회의를 “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회의”로 확대 운영
- 재활공학연구소 개발 보조기구의 소속병원 적용 절차 논의
- 2020년 전반기 고가 품목, 특이한 케이스, 민원 사례 등 논의
- 기존 보조기구서비스 개선
 - 산재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수가 분류 추가
 - 직무지원 보조기구는 시범 보조기구로 편입하여 관리
 - 아급성기 보조기구 서비스와 유지기 보조기구 서비스 구분하여 심사 및 추가 필요 수가 논의
 - 기타 제작실 의견 논의

부서별 역할 및 협조사항

[의료사업본부]

- 정책사업팀 : 소속병원 시범 보조기구 수가 분류 신설
- 병원운영부
 - 소속병원 제작실 운영개선 논의 7/10 회의
 - 제작실 운영관련 행정 여건 개선
 - 즉각 조치를 위한 여유 물품 비치품 운영의 문제
 - R&D 를 위한 제작실 운영비
 - 부품 및 행위 코드화
 - 제작부품 구입 행정 관련 : 유O종 님 케이스
 - 제작기사 관련 EMR 관련 의료정보부 협조 요청

[요양부]

- 산재 시범 보조기구 수가 신설 협조
- 기존 산재 요양급여 보조기구 협의 절차 조율

[재활공학연구소]

- 시범 보조기구 예비품목으로 운영할 개발품 리스트 정리
- 산재 시범 보조기구 수가 추진 물품 정리

[재활의학연구센터]

- 산재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회의 주관 - 차기 회의 일정
- 임상연구 계획, 산재 시범 보조기구 수가 운영안
- 세부 안건 추가 정리